

전북도, 금융도시 육성전략 수립

국민연금공단과 워크숍 문재인정부 1년 맞아 지역공약사업 진전도 점검

전북도와 국민연금공단은 10일, 완주 상관리조트에서 금융도시 육성전략 수립을 위한 워크숍을 했다. 이번 워크숍은 전북혁신도시를 서울, 부산과 함께 제3의 금융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전북도-국민연금공단 간 상호 협력사업의 방향을 설정하고 금

용산업 발전계획을 공유하고자 했다. 워크숍은 문재인 정부 지역공약 사업이기도 한 제3의 금융도시 육성사업이 문재인 정부가 1년이 지났는지 어느 정도 진전해 왔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날 행사에는 전라북도 최정호 정무부지사,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을 비롯하여 전북은행, NH농협 등 지역 금융기관 및 유관기관 등 전북도내 금융산업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했다. 오전에는 금융중심지 선정위원 이

력이 있는 서미트 투자자문사 신용순 사장과 전북 금융산업 현황에 정통한 전북연구원 김시백 부연구위원이 금융도시 육성전략을 주제로 각각 특강을 진행했다. 전북도, 국민연금공단 외에도 지역 금융기관, 시·군까지 함께한 분임토론 시간에는 그동안 꾸준히 논의해 오던 전북금융센터 건립,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 등 대표적인 협력사업 외에도, 금융중심지 지정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금융인프라 조성방안, 각 기관별 역할 분담, 정주

여건 등 지원인프라 조성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최정호 정무부지사는 "GM 가동 중단 등으로 우리도 주력산업이 흔들리는 시점에서, 국제경쟁력을 가진 금융산업은 전북의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전북을 제3의 금융도시로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으로, 앞으로 두 기관 간의 끈끈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것이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김진성 기자



10일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발전을 위해 정부와 협력해야 할 사안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1년 "공정적"

송하진 도지사, "100점 만점에 85점 주고 싶어 인사·새만금개발 등 대규모 사업 가시적 성과 85점준 이유는 탄소·연금법 등 미완의 것들 있어"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출범 1년을 맞은 문재인 정부를 공정적으로 평가했다. 송 지사는 "100점을 줬다고도 덧붙혔다. 10일 송 지사는 전북도청에서 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 1주년을 맞아 전북도의 변화된 위상과 정체됐던 현안사업 및 미래형 성장동력 기반구축 사업들이 주목받고 있다"며 "100점 만점에 85점 가량 주고 싶다"고 밝혔다. 이날 송 지사가 현 정부를 높게 평가한 것은 그동안 낙후되고 홀대받던 전북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기 때문이다. 송 지사는 "인사를 비롯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새만금개발 등 대규모 사업들이 해법을 찾고 속도를 내는 가시적 성과로 이어졌다"며 "전북 몫 찾기와 새만금개발 가속화, 정부예산 확대 확보 등의 성과는 전북 전반에 자신감과 자존감 회복이라는 기운을 불어넣

었다"고 말했다. 현 정부에 대해 긍정 평가하면서도 탄소법과 연금법 등 미완의 것들이 있어 85점을 줬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공직 생활을 오래했지만 이렇게 친근감을 느끼고 우리 편이라고 느껴지는 정부는 처음인 것 같다"며 "다른 공무원들도 정책 공모사업, 예산배분에 중앙부처를 많이 가는 데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 이어 "공항 및 전기상용차 중심의 자율주행기반 전진기지 조성,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 개최 등도 정 주요 현안에 대해 대통령과 직접 만나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이날 문재인 정부 1년 성과로 주요 현안 국정과제 다수 반영, 전북출신 인사 장·차관 임명, 공공기관유치 등을 꼽았다. /김진성 기자

인상깊었던 靑 접수 민원... "해외순방 때 차비로 써주세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청와대가 접수한 민원 건수는 총 4만817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정부 출범 1년차에 접수된 3만3179건 대비 45.2%가 증가했다. 반려동물 식용반대 민원부터 해외순방 경비에 보태쓰라는 편지까지 다양한 형태의 민원이 청와대에 접수됐다.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실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아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그동안의 민원 사례들에 대한 분석자료를 10일 공개했다. 유형별로는 법적·행정적 처분 등

靑, 1년 간 접수민원 분석 전체 접수민원 43%가 법·행정 처분 구제요청

에 대한 구제요청 민원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2만1077건이 접수돼 전체 민원의 43.8%를 차지했다. 수사·감사·조사 요청 민원(7498건·15.6%), 정책제언(5551건·11.5%), 선정 기원과 격려(5005건·10.3%)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정책제언 가운데에는 남북 정상회담 성공 및 통일(703건)과 관련된

제언이 가장 많았다. 사드배치 재검토 등의 의견(62건), 탈원전 정책 의견(53건), 개헌(50건) 순으로 나타났다. 단순민원 가운데에는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식용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1027건으로 가장 많았다. 남북 정상회담 개최·통일 기원(703건), 재소자 처우 및 인권 개선(380건) 순이었다. 이런 민원 중에는 접수할 수 없는 현금과 식품류들도 이어졌다. 청와대는 식품을 제외한 수제품 가운데 가액판단 절차 등을 거쳐 상당수를 반송했다. 보내준 분들에게 감사의 편

지도 함께 발송했다. 특히 초등학생과 노숙자 등이 편지 형태의 민원을 보낸 것이 눈길을 끈다. 청와대는 "유쾌하고 감사하고 미안했던 편지"라며 사연을 공개했다. 노숙자센터에서 생활하는 60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경비에 보태라며 1000원을 편지 속에 담아 보낸 사연, 초등학생 3학년 어린이가 해외순방 때 차비로 쓰라며 꽃병부에 1000원을 담아 청와대로 보냈다. 이외에도 일본인 팬이 지난 2월 발렌타인데이에 초콜릿을 꼭 사드 시라며 2만 엔을 보낸 사연, 직접 캔 자연산 고사리와 함께 힘내라는 응원의 편지를 보낸 경우도 있었다. /뉴시스

6·13 지방선거 전북도지사 예비후보 동향

임정엽 "송 지사, 끝장토론 해보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주령화당 임정엽 전북도지사 예비후보가 송하진 현 전북도지사(더불어민주당)에게 끝장토론을 제안했다. 10일 임 예비후보는 전북도의회에서 회견을 열고 "전북 경제 회생을 위해 끝장토론을 해보자"고 제안했다. 임 후보는 "정부가 군산지역을 산업특별지역으로 선포한 것을 계기로 전기와 수도,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분야에 대한 종합 투자도 도는 요구했어야 했다"며 "지금도 GM 군산공장을 회생시킬 마지막 골든타임이다"고 밝혔다. 이어 "조만간 정부와 GM간 협상이 마무리된다"며 "지금 도지사가 해야 할 일은 정부 협상안을 만들어 재가동에 필요한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진성 기자



권태홍 "새만금 신구상, 경제 회생"

6·13 지방선거 정당당 권태홍 전북도지사 예비후보는 10일 "새만금 신구상으로 전북 경제를 회생시키는 도지사가 되겠다"고 밝혔다. 권태홍 예비후보는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회견을 열고 '새만금 신구상 4대 과제, 13대 공약'을 발표했다. 4대 과제는 ▲민관거버넌스 '새만금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산업 메카 ▲4차 산업혁명 산업단지 구축, 스마트 시티 건설 ▲부분 해수유용으로 수질개선·수산업 복원 등이다. 또 한국GM·현대중공업 관련 실직 노동자들의 에너지협동조합 창업 및 일자리전환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진성 기자



이광석 "농업대혁명으로 전북 건설"

6·13 지방선거 민주당 이광석 전북도지사 후보는 10일 "농업대혁명으로 통일시대를 주도하는 전북을 건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광석 후보는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회견을 열고 "농업을 살리는 것은 전북을 살리는 것이다"며 "전북경제의 심각한 위기를 농업대혁명으로 극복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새만금에 통일농업전진기지를 조성하겠다"며 "현대중공업 조선소 철수, GM군산공장 폐쇄 등 위기의 전북경제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농 전북도연맹과 전여농전북연합회, 친환경농업인연합회전북연합회 등 도내 농민단체는 이광석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김진성 기자



덕유산리조트, 관광곤도라 일시 운행 중단... 18일까지

부영그룹(회장 이종근) 계열 무주덕유산리조트가 9일부터 18일까지 관광곤도라의 운영을 잠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불철 설천봉~향적봉 구간 탐방로 전면 출입 통제 기간에 맞춰 관광곤도라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춘계 정기점검을 실시하기 위함이다. 설천봉~향적봉 구간은 멸종위기야생생물Ⅱ급 삿, 무산쇠족제비, 덕유머츠

롱박딱정벌레, 복주머니란, 날개하늘나리 등을 포함해 구상나무, 은판나비 등 특산종이 다수 서식·분포하고 있다. 덕유산국립공원은 매년 봄철 멸종위기 야생생물, 특산종의 번식·개화기를 맞아 서식처를 보호하고 탐방객 과밀에 따른 훼손 저감을 위해 설천봉~향적봉까지 0.6km 구간의 탐방로 출입 통제를 일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무주=전문성 기자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강대훈(1943. 1. 26.생 2018. 1. 29. 사망)의 재산상속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신고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강동구 관사의 심판으로 법원에 수리되어 민법 제103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자 또는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인에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일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사건번호: 2018년단519 상속한정승인 관사 강동구
- ▶피상속인: 망 강대훈(1943. 1. 26.생 2018. 1. 19. 사망)
- ▶최후주소: 전북 부안군 위도면 진리안길 13-7
- ▶공고인: 김명자, 강선의, 강경원, 강영원, 강선숙, 강문경
- ▶상속한정승인수리일: 2018. 4. 17.
- ▶공고기간: 2018. 5. 11. ~ 2018. 7. 10.
- ▶주소: (청구인 대표 김명자의 주소) 전북 부안군 위도면 진리안길 13-7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